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부부 지지의 매개효과*

김 시 연[†]

서 영 석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이론들을 기초로 결혼관련 변인들(부적응 도식, 일상적 스트레스, 부부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에 대한 통합적 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된 부부 지지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남편집단과 아내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87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 척도,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배우자 지지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된 부부 지지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변인들간의 관계는 남편집단과 아내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남편집단에서는 부부 지지가 일상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간 관계를 매개하였으나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 간 관계는 매개하지 않았다. 반면, 아내집단에서는 부부 지지가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 간 관계는 매개하였으나 일상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간 관계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 상담에의 시사점과 제한점 그리고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적응 도식, 일상적 스트레스, 결혼만족, 지각된 부부 지지

* 본 논문은 김시연(2008)의 2008년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발췌 한 것임

† 교신저자 : 김시연,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Tel : 02-2123-6171, E-mail : sa8111@yonsei.ac.kr

IMF이후 급격히 증가하던 이혼율은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해왔는데(통계청, 2008), 이혼율 감소의 배경에는 이혼숙려제도의 시범적 실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2005년 3월부터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법원 80%에서 2-4주간의 이혼숙려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이혼신청 취하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대법원, 2008). 이러한 시범운영의 가시적인 성과로 인해, 올해부터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민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전문가 상담을 권유할 수 있는 상담권고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이혼에 대한 시각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즉, 이혼을 타인이 간섭할 수 없는 개인적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이혼숙려제 실시의 성공적인 결과는 국가 차원의 개입이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결혼생활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부부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결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예를 들어, 『상담 및 심리치료지』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더라도 지금까지 결혼에 관한 연구는 단 3편(김광은, 2005; 김희진, 2005; 서정선, 2007)에 불과하다.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부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고찰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

하다.

결혼 문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심리학적 연구들은 결혼 적응이 배우자간에 교환되는 행동 및 이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의 결과라는 공통된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Jacobson & Margolin, 1979; Bradbury & Fincham, 1991; Epstein & Baucon, 1993 재인용), 대부분의 경우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을 찾는데 그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변인, 행동변인 및 성격변인들 사이의 보다 정교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에 그 관심이 집중되었다(Bradbury & Karney, 1993). 그 결과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이나 매개 및 중재효과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별 변인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이들 변인간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결혼 적응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효한 관련 변인들간의 통합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결혼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 변인인 초기 부적응 도식, 개인간 변인인 배우자지지, 그리고 개인 외적 변인인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와 초기 부적응 도식이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남편과 아내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

연구들(장춘미, 2001; 전영민, 2000; Almeida & Kessler, 1998; Cohan & Bradbury, 1997; Freeman, 1998; Nemati, 1996)을 토대로 결혼만족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이 남편과 아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Young(1990)은 Beck의 핵심 신념으로부터 초기 부적응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초기 부적응 도식은 유기, 학대, 무시, 거절 등의 아동기 주제와 관련된 일련의 기억, 정서, 신체감각 및 인지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생애 초기에 형성되어 일생동안 지속되고 전 생애를 통해 정교화되며, 이로 인해 개인은 심한 부적응과 대인관계상의 문제를 보이게 된다(Young, 1990, 1999; Young, Klosko, & Weishaar, 2003). 선행 연구들은 초기 부적응 도식이 관계 만족 및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일례로, 초기 부적응 도식(의존, 실패, 유기 도식)은 결혼만족도와 부적응 상관을 보였고(Nemati, 1996), 부적응 도식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Freeman, 1998). 또한, D'Andrea(2003)의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이 긍정적 정서 및 적응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tiles(2004)는 정서적 결핍 도식, 결합/수치심 도식이 낭만적 관계에서의 친밀감과 부적응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 중 몇몇 연구(Freeman, 1998; Nemati, 1996)에서 남편과 아내에 따라 초기 부적응 도식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는 것이다. 즉, 아내의 경우 초기 부적응 도식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쳤으나, 남편의 경우에는 부적응 도식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생활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

트레스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을 더 잘 예측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고(Lazarus, DeLongis, Folkman, & Gruen, 1985), 관련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Almeida & Kessler, 1998; Lazarus et al., 1985; Whiffen & Cotilib, 1989). 결혼 관련 연구들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의 영향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일상적인 사건이 많을수록 결혼 적응 수준이 낮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 만족도가 낮은 남편들은 그렇지 않은 남편들에 비해 일상적인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Whiffen & Cotilib, 1989). 반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의 일치도, 만족도, 결합도, 애정표현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차승희, 1991).

한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영역이 남녀마다 다르고(Almeida & Kessler, 1998; Conger et al., 1993),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성차가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들(이정은, 1999; 장춘미, 2001; 전영민, 2000; Cohan & Bradbury, 1997; Whiffen & Cotilib, 1989)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남편들은 과중한 작업이나 재정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반면, 아내들은 집안일, 가족의 요구, 자녀와의 논쟁 등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Almeida & Kessler, 1998).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우선 장춘미(2001)의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남편의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남편들의 경우엔 생활 스트레스가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쳐

결국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만 아내의 경우엔 이러한 관련성이 없거나(전영민, 2000), 남편의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아내에 비해 클 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공격적이고 요구-철회 유형의 갈등 해결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아내들의 경우엔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이정은, 1999)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또한, Whiffen 과 Corilib(1989)의 연구에서도 남편들의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결혼만족도를 낮게 보고한 남편들이 그렇지 않은 남편들에 비해, 문제가 생기기 이전 달의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그 영향을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스트레스와 부적응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30을 넘지 못하는 낮은 상관을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Cohen & Hoberman, 1983). 이러한 지적은 스트레스 연구에서 개념적인 면을 재검토하게 만들었고,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관계를 매개 또는 중재하는 제3의 변인의 존재 여부에 관심을 갖게 했다. 즉, 학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거나 완충시켜 적응을 도와주는 개인의 인지적,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 중 대표적인 것이 인지 현상학적 이론에 근거한 스트레스-대처이론(Folkman, Lazarus Dunkel-Setter, DeLongis & Gruen, 1986)이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을 환경적 변화에 대처하는 능동적 주체로 간주하고, 유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 통제능력에 대한 평가, 실제로 수행된 대처행동에 따라 개인의 적응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대처이론은 사회

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사회적 지지는 대인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많은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개인은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경험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김정희, 1987; 김미례, 2006; 장춘미, 2001; Beeman, 1993; Cohen & Wills, 1985; Simons, Lorenz, & Wu, 1993). 여기에서 핵심은 실제로 제공받은 지지보다는 개인이 지각하는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Cohen 과 Syme(1985)는 개인이 실제로 제공받은 지지와 지각한 지지를 비교한 결과 개인이 지각하는 지지가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안녕을 더 잘 예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Wethington과 Kessler(1986)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사회적 지지 중 하나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얻는 지지일 것이다. Cutrona(1996)는 배우자지지를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 배우자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 남편이나 아내는 도움이 필요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가장 많은 지지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원천이며, 부부간의 지지행동은 배우자의 적응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실제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남편의 지지가 취업여성의 역할갈등과 스트레스를 중재시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Burke & Weir, 1982), 부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에 상관없이 상대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가 부부의 결혼

만족도 및 안정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utrona, 1996). 특히, 배우자 지지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Simons et al., 1993),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 관계(장춘미, 2001)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성-스트레스-적응(Vulnerability-Stress-Adaptation: VSA) 모형

Karney와 Bradbury(1995)는 결혼 관련 115개의 중단연구들을 분석한 후,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취약성-스트레스-적응(Vulnerability-Stress-Adaptation: VSA)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VSA모형은 발달력, 성격, 애착 유형, 원가족에서의 경험 등 개인의 영속적인 취약성(enduring vulnerabilities)요인과 스트레스 사건 요인, 그리고 적응과정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결혼생활 만족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에서 적응과정(adaptive process)은 부부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 부부가 개인이나 부부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면서 교환하는 부부의 행동을 말한다. VSA모형은 결혼생활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내적, 대인간, 외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모형에 포함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요인간 관계를 상술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Karney와 Bradbury(1995)는 앞으로 이들 요인 간 관계와 요인에 포함될 수 있는 변인들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SA모형을 근거로 ‘초기 부적응 도식’을 개인의 영속적 취약성 변인으로, ‘일상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사건 변인으로, ‘배우자 지지’를 적응과정 변인으로, 그리고 ‘결혼만족도’를 결혼생활의 질을 구인하는 변인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관련 이론들을 토대로 VSA모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인 간 관계를 설정하였다. 우선, 영속적 취약성(부적응 도식)과 스트레스사건 간에 일방적 경로가 아닌 양방향 상관을 가정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Beck(1979)의 스트레스-취약성 모형(stress-vulnerability model)을 근거로 한 것이다. 스트레스-취약성 모형에서는 인지적 취약성을 역기능적 인지도식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부정적인 내용의 자동적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기능적 인지도식의 내용들이다. 이 모형은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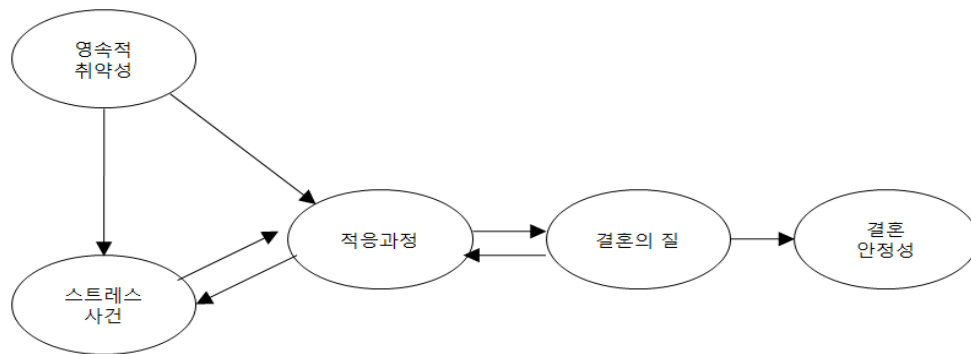


그림 1. Karney와 Bradbury(1995)의 취약성-스트레스-적응(VSA) 모형

인이 지니고 있는 취약성과 상황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사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사소한 스트레스도 과잉 지각하게 되고, 과잉 지각된 스트레스는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강화시켜 결국 심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입장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인 초기 부적응 도식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는 양방향의 경로를 가정하였다. 실제 연구에서도 부적응 도식과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양방향의 경로를 가정한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 있다(하혜신, 2007; 한일지, 2005).

또한, VSA모형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사건과 적응과정(배우자지지), 적응과정과 결혼만족도 간에 일방향의 경로를 가정하였다. 이는 스트레스에서 적응 과정, 적응 과정에서 결혼만족에 이르는 일방향의 모형이 더 적절한 모형이며(전영민, 2000), 부부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반면 결혼만족이 부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Bradbury & Karney, 1993; Karney & Bradbury, 1997)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주고받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를 대처양식과 함께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간주하는 스트레스-대처모형과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초기 부적응 도식(Freeman, 1998; Nemati, 1996)과 스트레스 사건(차승희, 1991; Whiffen & Cotilib, 1989)이 각각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과 스트레스사건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부부의 지지 및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적응 도식과 스트레스 사건의 영향력이 부부 지지를 매개로 결혼만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그림 2)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수들의 영향력이 남편과 아내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연구들(이정은, 1999; 장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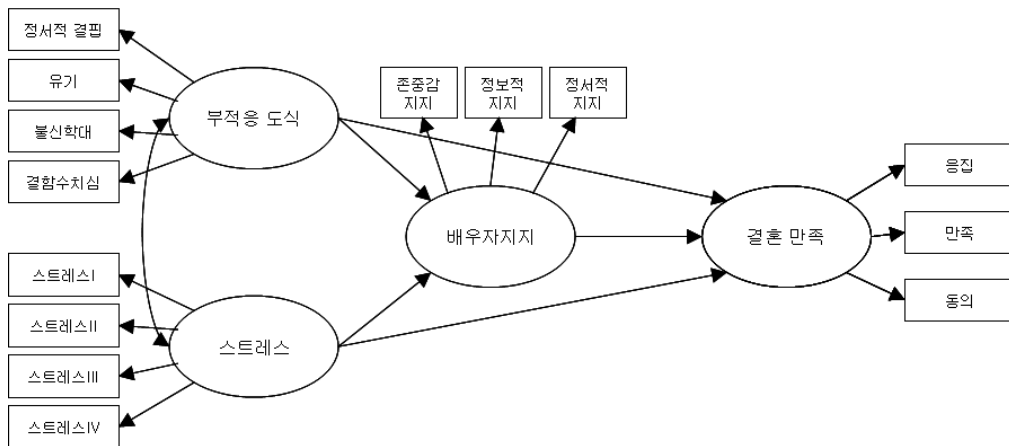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가설 모형

2001; 전영민, 2000; Cohan & Bradbury, 1997; Whiffen & Cotlib, 1989)을 토대로, 남편과 아내의 연구모형을 구분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와 매개변수의 효과 및 개별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VSA 모형, 스트레스-취약성 모형 및 스트레스-대처 모형과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의 지지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남편과 아내집단에 따라 다른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초기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 지지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가? 부부 지지의 부분매개모형은 남편과 아내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둔 부부 중 결혼연한이 2년 이상 된 30, 40대 부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자녀를 둔 결혼연한 2년 이상의 부부로 한정 한 이유는, 결혼기간과 자녀 유무가 결혼만족도에 편파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Karney & Bradbury, 1995; Kudek, 1991; Moroe, 1982; 장춘미, 2001 재인용). 2008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서울 지역 3개 유치원, 1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그리고 경기도에서 각각 2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가 각 교육기관의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교사들은 원생

과 학생들을 통해 부모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유치원의 경우 설문지의 사용 목적 및 실시방법에 관한 글을 가정통신문에 넣어 전달하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를 봉투 겉면에 붙여 학생 편에 전달하였다. 설문지는 남편용과 아내용으로 구분하여 각자의 응답내용을 비밀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설문이 끝난 후 설문지를 회수용 봉투에 밀봉하도록 하였다.

총 12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693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을 하였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110부, 한 배우자만 응답하였거나 부부의 짝을 지을 수 없는 217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74부(187쌍)의 설문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7.4세($SD = 4.22$)였으며, 남편은 39세($SD = 4.16$), 아내는 36.4세($SD = 3.87$)였다. 부부의 평균 결혼기간은 12.7년($SD = 9.03$)이었고, 평균 자녀수는 2.79명($SD = 0.64$)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학력은 남성이 고졸 5.3%, 전문대졸 6.4%, 대졸 59.4%, 대학원 이상 28.9%이었고, 여성의 경우 고졸이 10.2%, 전문대졸 20.3%, 대졸 63.1%, 대학원 이상 6.4%로, 남편의 88.3%, 아내의 69.5%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춰 연구대상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부적응 도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이미엘(2006)이 임상심리학자 2명과 함께 번안한 Young 도식 질문지 단축형(YSQ-S; Young, 1994)을 사용하였다. YSQ-S는 총 205문항으로 구성된 Young 도식 질문지

(Young Schema Questionnaire; Young & Brown, 1990, 1991 개정; 1994 개정)를 요인분석 한 후, 각각의 심리도식에서 가장 비중이 큰 문항을 5개씩 선정하여 총 15개 도식, 75 문항으로 구성된 간편형 척도이다.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 도식의 특징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한편, Young, Weinberger와 Beck(2001)은 정서적 결핍, 유기, 불신/학대, 결합/수치심, 사회적 고립을 포함하는 ‘단절 및 거절’ 영역이 가장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사회적 고립을 제외한 4개의 심리도식이 가장 강력하고 손상이 큰 심리도식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결핍, 유기, 불신/학대, 결합/수치심 등 4개의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고 이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주요 자료분석에 앞서 YSQ-S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요인분석 결과 원 척도와 동일한 1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절 및 거절’ 영역의 정서적 결핍, 유기, 불신/학대, 결합/수치심 등 4개의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원 척도와 동일한 심리도식에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4개 도식에 해당되는 문항들의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다. 하위도식의 신뢰도는 정서적 결핍 .91, 유기 .85, 불신/학대 .79, 결합/수치심 .91로 나타났다.

일상적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

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김정희(1995)가 변안한 DeLongis, Folkman과 Lazarus(1988)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Daily Hassles Scale: DHS)를 사용하였다. 본래 DHS는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김정희(1995)가 한국 실정에 맞게 9개 문항을 제외하고 36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은 하루 동안 일상생활사건(예, 집안일, 환경, 정치사회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경험하는지를 4점 척도(1점 = 전혀 아니다, 4점 = 아주 그렇다)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변안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김정희, 199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권유에 따라 다변량 잠재변수를 분석하는 기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측정 방법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항목을 합산하거나 평균한 집계를 측정지표로 사용하는 항목 묶기(item parceling)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항목 묶기를 사용한 이유는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를 줄여 다변량 정규(분포)성의 개선이 가능하고, 개별 문항들의 독특한 특성에 의해 결과가 왜곡되는 단점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개별항목에 비해 더욱 연속적이고 정규 분포화된 특성을 얻을 수 있어 구조방정식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최대우도법과 같은 추정 방법의 가정에 더욱 온전히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Little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에 근거하여 일상적 스트레스의 36개 문항으로부터 4개의 부분합(스트레스 1, 스트레스 2, 스트레스 3, 스트레스 4)을 산출하고 이를 잠재변수(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관측변수로 사용하였다.

지각된 배우자지지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를 장춘미(2001)가 수정 보완한 ‘부부의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장춘미(2001)는 박지원(1985)의 18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Pasch와 Bradbury(1998)의 ‘사회적 지지 상호작용 분류체계의 분류에 대한 기술’(Description of Codes from the Social Support Interaction Coding System)에서 부정적인 지지행동(예: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함, 자신의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일 것을 고집함)으로 분류된 4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총 5개의 하위요인(정보적, 도구적, 존중감, 정서적, 부정적 지지)으로 이루어진 22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척도와는 다른 4개의 요인구조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 1을 정보적 지지, 요인 2를 정서적 지지, 요인 3을 존중감 지지, 요인 4를 부정적 지지로 명명하여, 이중 부정적 지지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만을 사용하여 지각된 배우자지지 수준을 측정하였다. 부정적 지지 척도를 제외한 이유는, 나머지 하위 척도들과의 상관이 .33~.37수준으로 다른 지지들 간의 상관(.87~.90)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배우자지지 구성개념의 단일차원성이 전제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춘미(2001)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 는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정보적 지지 .94, 정서적지지 .90, 존중감지지 .92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 남영주(2003)가 번안한 Busby, Christensen, Crane와 Larson(1995)의 개정된 부부 적응 척도(Adapted Dyadic Adjustment Scale: ADAS)를 사용했다. ADAS는 Spanier(1976)의 부부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Busby 등이 재구성한 것으로, 동의, 만족, 응집 등 3개 영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의’는 배우자간에 가치관, 의사결정, 종교 등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6점 척도(1 = 항상 불일치한다, 6점 = 항상 일치한다)로 평정하고, ‘만족’은 말다툼, 결혼에 대한 후회 등과 같은 결혼의 안정성과 관련된 생각이나 행동 등을 6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 항상 그렇다)로 평정한다. 마지막으로 ‘응집’은 배우자와 관심사나 취미 활동 등을 얼마나 공유하는지를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서로 생각을 교환하고 함께 일을 추진하는 정도를 6점 척도(1점 = 단 한 번도 없다, 6점 = 하루에 몇 번씩)로 평정한다. 남영주(2003)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영역별 신뢰도는 응집 .89, 동의 .85, 만족 .84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변인들의 상관관계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14개 관측변수 간의 상관계수와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구하고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응 도식과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와 결혼만족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표 1. 14개 관측 변수들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	.51**	.44**	.55**	-.36**	-.37**	-.22**	.29**	.21**	.26**	.29**	-.26**	-.29**	-.28**
2		-	.48**	.65**	-.27**	-.37**	-.20**	.26**	.22**	.33**	.24**	-.09	-.13*	-.14**
3			-	.50**	-.23**	-.32**	-.26**	.25**	.28**	.21**	.23**	-.15**	-.16**	-.16**
4				-	-.41**	-.47**	-.27**	.32**	.31**	.39**	.32**	-.25**	-.33**	-.30**
5					-	.64**	.57**	-.39**	-.25**	-.18**	-.36**	.61**	.59**	.61**
6						-	.61**	-.46**	-.26**	-.19**	-.40**	.55**	.56**	.53**
7							-	-.43**	-.26**	-.15**	-.35**	.54**	.54**	.54**
8								-	.50**	.50**	.50**	-.30**	-.36**	-.31**
9									-	.50**	.39**	-.15**	-.15**	-.17**
10										-	.32**	-.03	-.09	-.08
11											-	-.28**	-.29**	-.30**
12												-	.88**	.88**
13													-	.90**
14														-
M	10.5	10.8	11.4	9.7	13.2	23.1	16.3	13.9	7.4	6.1	6.8	19.2	32.7	19.4
SD	5.0	5.0	4.5	4.2	4.3	4.3	6.3	4.1	5.0	2.6	2.2	6.2	8.5	5.9
왜도	.89	.65	.71	1.12	.23	-.41	-.29	.36	.38	.86	.08	-.18	.01	.10
첨도	.13	-.22	.79	1.13	-.71	-.35	-.13	-.64	-.55	-.13	-.59	-.84	-.97	-.83

주. N = 374. 1-4는 부적응 도식의 하위요인들로, 1 = 정서적 결핍, 2 = 유기, 3 = 불신학대, 4 = 결함수치심이다. 5-7은 결혼만족의 하위요인들로, 5 = 응집, 6 = 동의, 7 = 만족을 나타낸다. 8-11은 스트레스를 4개의 하위요인으로 묶은 것으로 8 = 스트레스1, 9 = 스트레스2, 10 = 스트레스3, 11 = 스트레스4 이다. 12-14는 배우자지지의 하위요인들로, 12 = 정보적지지, 13 = 정서적지지, 14 = 존중감지지이다.

* $p < .05$. ** $p < .01$.

나타났다. 또한 남편과 아내를 구분하여 산출한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측정모형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의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Finch와 West(1997)는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

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제안하였는데, SPSS에서는 첨도가 0에 가까울수록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왜도와 첨도 모두 절대값 2를 넘지 않을 경우에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SPSS12.0을 이용하여 왜도와 첨도를 계산한 결과(표 1 참조), 모든 변수들에서 절대값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

표 2. 남편과 아내의 14개 관측 변수들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	.51**	.39**	.53**	-.34**	-.41**	-.27**	.41**	.29**	.26**	.26**	-.32**	-.31**	-.31**
2	.52**	-	.47**	.71**	-.36**	-.42**	-.35**	.33**	.18*	.37**	.23**	-.19**	-.27**	-.25**
3	.50**	.50**	-	.48**	-.15*	-.23**	-.23**	.29**	.29**	.17*	.20**	-.19*	-.20**	-.19**
4	.59**	.58**	.55**	-	-.36**	-.48**	-.30**	.34**	.25**	.33**	.29**	-.22**	-.34**	-.28**
5	-.38**	-.18*	-.31**	-.46**	-	.53**	.53**	-.33**	-.26**	-.16*	-.34**	.54**	.52**	.53**
6	-.32**	-.32**	-.40**	-.47**	.73**	-	.60**	-.38**	-.20**	-.15*	-.43**	.51**	.55**	.50**
7	-.19*	-.06	-.33**	-.22**	.60**	.63**	-	-.30**	-.22**	-.19**	-.29**	.52**	.55**	.56**
8	.19**	.21**	.30**	.29**	-.46**	-.54**	-.47**	-	.53**	.63**	.52**	-.21**	-.31**	-.24**
9	.13	.28**	.30**	.37**	-.23**	-.30**	-.27**	.45**	-	.45**	.40**	-.20**	-.19**	-.23**
10	.27**	.28**	.25**	.44**	-.20**	-.23**	-.10	.39**	.51**	-	.26**	.03	-.08	-.05
11	.32**	.25**	.26**	.36**	-.38**	-.38**	-.43**	.55**	.38**	.39**	-	-.30**	-.29**	-.29**
12	-.20**	.01	-.13	-.27**	.67**	.58**	.55**	-.38**	-.08	-.08	-.27**	-	.87**	.89**
13	-.27**	.01	-.14	-.32**	.66**	.57**	.53**	-.42**	-.10	-.11	-.29**	.89**	-	.92**
14	-.25**	-.01	-.15*	-.32**	.69**	.55**	.53**	-.38**	-.09	-.10	-.31**	.87**	.89**	-
남편	M 10.6	10.8	11.1	10.1	13.0	22.9	15.6	15.6	7.7	6.2	6.8	18.8	32.3	19.0
	SD 5.0	4.3	4.2	4.2	4.4	6.6	4.3	5.0	2.4	2.1	2.1	6.5	8.9	6.1
아내	M 10.4	10.7	11.7	9.3	13.4	23.3	17.1	12.3	7.1	6.0	6.8	19.5	33.1	19.7
	SD 5.1	4.8	4.1	4.4	4.2	5.9	3.7	4.4	2.7	2.3	2.3	5.9	8.0	5.8

주. N = 374. 남편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아래에, 아내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위에 각각 제시하였다. 1-4는 부적응 도식의 하위요인들로, 1 = 정서적 결핍, 2 = 유기, 3 = 불신학대, 4 = 결함수치심이다. 5-7은 결혼만족의 하위요인들로, 5 = 응집, 6 = 동의, 7 = 만족을 나타낸다. 8-11은 스트레스를 4개의 하위요인으로 묶은 것으로 8 = 스트레스1, 9 = 스트레스2, 10 = 스트레스3, 11 = 스트레스4 이다. 12-14는 배우자지지의 하위요인들로, 12 = 정보적지지, 13 = 정서적지지, 14 = 존중감지지이다.

* $p < .05$. ** $p < .01$.

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mos 7.0에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71, N = 374) = 194.98, p < .001$; CFI = .96; TLI = .95, RMSEA = .068. 또한, 모든 측정변수들이 잠재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1$) 적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z-점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에서 사용했던 최대우도법과 적합도지수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가설로

표 3. 측정 모형의 요인부하량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SE)	z	표준화계수
부적응 도식				
정서적 곁핍	.932	.071	13.041	.675***
유기	.943	.064	14.734	.758***
불신학대	.710	.060	11.827	.619***
결함수치심	1.000			.842***
일상적스트레스				
스트레스 I	2.874	.266	10.798	.798***
스트레스 II	1.193	.124	9.597	.641***
스트레스 III	.983	.106	9.256	.610***
스트레스 IV	1.000			.621***
배우자 지지				
정서적 지지	1.430	0.37	38.475	.952***
정보적 지지	1.023	0.29	35.108	.929***
존중감 지지	1.000			.946***
결혼만족				
동의	1.488	.091	16.334	.812***
만족	.871	.060	14.415	.727***
응집	1.000			.797***

*** $p < .001$.

설정된 배우자지지의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림 3). 본 연구에서는 Roberson, Moye와 Locke (1999)의 연구를 토대로 배우자지지의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는데, 먼저 부분 매개모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한 후 완전 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χ^2 차이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랩 방식을 통해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크기와 유의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이 모형은 모든 가능한 구조적 관계를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동일하다: $\chi^2(71, N = 374) = 194.98, p < .001$; CFI = .96; TLI = .95, RMSEA = .068. 따라서 측정모형과 마찬가지로 부분매개모형 역시 자료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모형은 결혼만족도 변량의 7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절차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우선, 부적응 도식과 스트레스에서 결혼만족으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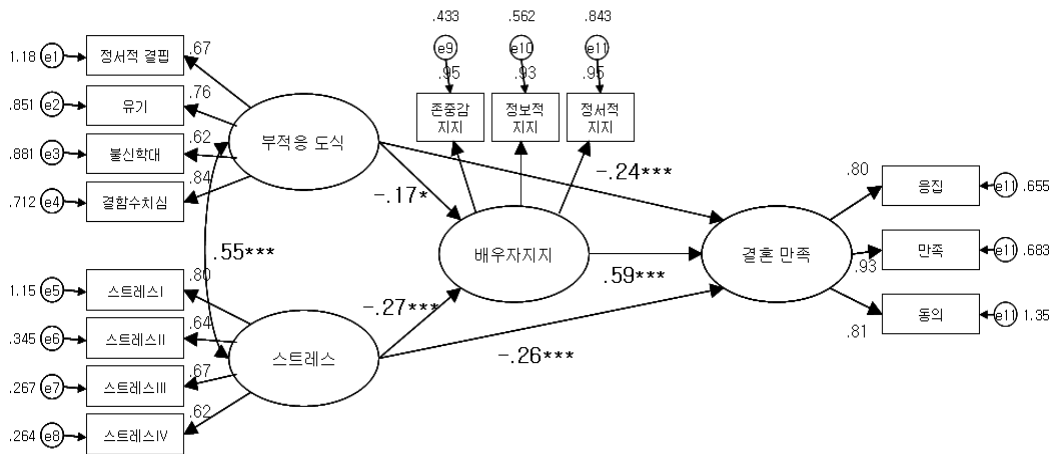


그림 3. 배우자지지의 부분매개 모형. * $p < .05$. *** $p < .001$.

는 경로계수를 각각 0으로 설정한 완전매개모형은 대체로 양호한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chi^2(73, N = 374) = 284.80, p < .001$; CFI = .93; TLI = .91, RMSEA = .088. 그러나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비교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chi^2(2, N = 374) = 89.81, p < .05$. 이는 직접경로들이 추가된 부분매개모형이 비록 모형의 간명성은 떨어지지만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더 좋음을 의미한다. 즉,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 및 그 크기를 확인하기 위한 부트스트랩 과정에 부분매개모형을 사용하였다.

부분매개모형의 간접효과

부분매개모형에서 간접효과의 유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방식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측정하였고 원자료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20,000개의 자료 표본이 모수 추정에 사용되었으며, 95%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스트레스-배우자지지-결혼만족으로 이어지는 매개경로($\beta = -.159$)와 부적응 도식-배우자지지-결혼만족으로 연결되는 매개경로($\beta = -.103$)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부적응 도식과 스트레스는 배우자 지지를 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적응 도식과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경로와 간접적인 경로 모두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적응 도식과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자지지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이 확인

표 4. 부분매개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스트레스 -> 결혼만족	-.422***	-.263***	-.159**
부적응도식 -> 결혼만족	-.341***	-.238***	-.103*
배우자지지 -> 결혼만족	.592***	.592***	-

* $p < .05$. ** $p < .01$. *** $p < .001$.

되었다.

남편과 아내의 구조모형 검증

집단(남편, 아내)에 따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가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홍세희(2001)의 제안에 따라 다집단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우선, 자료에 가장 적합한 모형이 두 집단에서 동일한지를 살펴보았고(형태동일성), 두 집단에서 동일한 측정모형이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의 관계를 적절하게 기술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측정동일성),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경로계수들을 비교하였다(구조동일성).

형태동일성 검증

먼저, 집단의 형태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두 집단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이 동일한지를 알아보았다. 아내집단의 경우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chi^2(73, N = 374) = 206.26, p < .01$; CFI = .92; TLI = .90, RMSEA = .099,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chi^2(71, N = 374) = 167.58, p < .01$; CFI = .95; TLI = .93, RMSEA = .072로 나타났다. 반면, 남편집단은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chi^2(73, N = 374) = 249.90, p < .01$; CFI = .89; TLI = .87, RMSEA = .114,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chi^2(71, N = 374) = 184.68, p < .01$; CFI = .94; TLI = .92, RMSEA = .083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했을 때, 자유도 차이에 비해 χ^2 차이가 매우 크고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집단 모두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즉, 구조모형에 대한 집단의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

다음 절차로, 두 집단에서 동일한 측정모형이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의 관계를 적절하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두 집단에 걸쳐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였는데, χ^2 차이검증 결과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chi^2(10, N = 374) = 17.71, p > .05$ 따라서 측정모형에 대한 집단의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었다.

구조동일성 검증

집단의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집단간 경로계수 비교를 위해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에서 경로계수가 서로 같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유모형을 비교하여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chi^2(6, N = 374) = 10.73$ 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이 모형에서 집단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두 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내들의 부적응 도식은 남편으로부터의 지지를 덜 지각하게 하지만, 남편들의 경우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남녀 모두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배우자로부터 얻는 지지가 덜하다고 지각하였는데, 이런 경향성은 남편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부적응 도식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아내집단에서 더 큰 반면,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남편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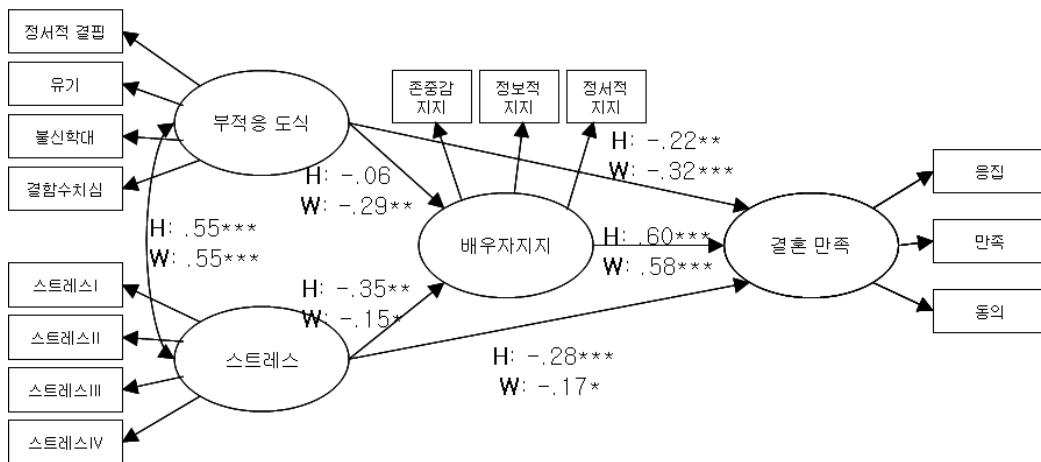


그림 4. 남편(H)과 아내(W)의 부분매개모형 경로계수. * $p < .05$. ** $p < .01$. *** $p < .001$.

남편집단모형으로는 부적응 도식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만을 가지며, 스트레스의 경우 결혼만족에 직·간접 효과를 모두 가지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반면, 아내집단모형은 부적응 도식과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직·간접효과를 모두 가지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두 집단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집단별로 스트레스, 부적응도식, 배우자

지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분류해 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남편집단의 경우, 부적응도식의 간접효과를 제외한 모든 효과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들의 경우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beta = -.497$)은 부적응도식($\beta = -.268$)의 영향보다 두 배 가까이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표 5. 집단별 부분매개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남편집단			
스트레스 → 결혼만족	-.497***	-.284***	-.213**
부적응도식 → 결혼만족	-.268**	-.220**	-.048
배우자지지 → 결혼만족	.604***	.604***	-
아내집단			
스트레스 → 결혼만족	-.251**	-.165**	-.086
부적응도식 → 결혼만족	-.487***	-.321***	-.166**
배우자지지 → 결혼만족	.583***	.583***	-

** $p < .01$. *** $p < .001$.

하는 간접효과 또한 직접효과 만큼이나 크기 때문이다. 반면, 아내집단은 남편집단과는 정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우선, 스트레스의 간접효과를 제외한 모든 효과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아내들의 경우에 스트레스($\beta = -.251$)보다는 부적응도식이 결혼만족에 더 큰 영향($\beta = -.487$)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부적응도식의 직접효과뿐 아니라 간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적응도식과 스트레스가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만족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에 입각해 영속적 취약성 변인인 부적응도식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인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적응도식, 일상 스트레스,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는 결혼만족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도식이나 스트레스에 비해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적응도식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는 반면,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졌다. 이런 결과들은 각각 부적응도식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지고 친밀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 연구결과

(D' Andrea, 2003; Freeman, 1998; Nemati, 1996; Stiles, 2004)와 유사하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선행연구(장춘미, 2001; 전영민, 2000; 차승희, 1991; Whiffen & Cotlib, 1989), 그리고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미례, 2006; 장춘미, 2001; Burke & Weir, 1982; Cutrona, 1996; Simons et al., 1993)와 일치한다.

한편, 부적응도식과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전체 효과 중 약 3분의 1 정도가 배우자지지를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의 지지가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 사이를 매개한다고 밝힌 Simons와 그의 동료들(1993), 그리고 부부의 지지를 포함한 부부의 상호작용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밝힌 장춘미(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부적응도식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지지 수준을 감소시키고, 이는 결국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킬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집단을 나누어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비교하였는데, 몇 가지 차이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부적응도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집단과 아내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였으나, 아내집단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집단에서만 부적응도식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Freeman(1998)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남편의 부적응도식은 지각된 배우자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아내집단에서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적응도식이 큰 아내는 남편으로

부터 지지를 덜 받고 있다고 지각할 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 또한 낮지만, 남편들의 경우에는 부적응도식이 크다고 하더라도 아내로부터 받고 있는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결혼만족도를 낮춤을 의미한다.

둘째, 스트레스가 배우자지지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집단과 남편집단 모두에서 유의했고, 남편집단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들에 비해 남편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상대방 배우자의 지지를 덜 지각하고 결혼에 대해서도 덜 만족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편들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고 결혼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이정은, 1999; 전영민, 2000; Whiffen & Cotlib, 1989)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반면, 아내와는 달리 남편들의 일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춘미(2001)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남녀 간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남편들이 아내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배우자지지를 덜 지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덜 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도움추구와 관련해서 보이는 남녀 간 차이는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우울이나 가벼운 기분 장애로 병원을 찾는 비율은 여성에게서 현저히 높지만, 알코올중독이나 강박장애 등의 치료가 어려운 장애나 스트레스의 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살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를 나타낸다(통계청, 2008). 즉,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나 자신의 심리

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회피하거나 갈등하여 이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내들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배우자의 지지 및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통해 이를 해소하여 결국 스트레스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만, 남편들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지지나 도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낮아 결국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담 실체에 함의를 지닌다. 먼저, 부적응 도식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배우자지지의 수준이 낮다는 사실은, 부적응도식을 보다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대안적 사고로 바꿔주는 인지적 상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Beck(1979)의 스트레스-취약성 모형에서 강조하듯, 인지적 왜곡은 작은 스트레스도 실제보다 더 크게 지각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 인지적 왜곡을 심화시키는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왜곡된 인지구조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곡된 인지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왜곡된 사고가 배우자지지 및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과잉 지각하는 현상이 줄어들어 결국 스트레스가 배우자지지 및 결혼만족에 미치는 전체적인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배우자지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매

개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 당사자들의 결혼생활 적응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부 또는 결혼 상담에서 강조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전략 및 기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적응 도식 수준이 높거나 스트레스가 많아 자아가 약화된 부부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되는 인지-행동치료를 단독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부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가족면담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지지를 부부가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상담 장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내와 남편의 결혼모형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내와 남편을 상담할 때 서로 다른 영역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남편들의 경우 왜곡된 사고를 대체시키려는 노력뿐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자신들의 대처전략을 파악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 보다 기능적인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 기법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담과정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적응 도식과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 결국 배우자지지 본래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아내들의 경우엔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노력뿐 아니라 부적응도식을 줄이는 노력이 상담 장면에서 더욱 요구된다. 부적응 도식의 수준이 높은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은 결국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지행동적인 접근을 통해 부적응 도식을 개

선할 수 있다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켜 결국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은 부부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국의 모든 부부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부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응답자가 실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측정도구를 평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으로부터 설문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응답자들이 집에서 설문지를 작성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간섭이나 상호작용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응답 시 부부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라는 상호의존적인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는데, 남편과 부인의 측정치를 서로 독립적인 자료로 간주하여 분석하게 되면 제 1종 오류(type I error)를 범할 확률이 증가한다(Kenny, 1996). Kenny(1996)는 제1종 오류의 증가로 인한 부부자료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APIM(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t model)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APIM에 따라 결혼당사자들의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한 후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은 남편과 아내가 스트레스로 느끼는 영역이 다르고, 스트레스원에서도 성차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무엇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지가 지각된 배우자지지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연구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계수 (2007).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광은 (2005).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희진 (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77-906.
- 김미례 (2006). 기혼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정희 역 (199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Lazarus, R.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s,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Company.). 서울: 대광문화사.
- 김정희 (1995).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44-69.
- 남영주 (2003). 삼, 사십대 기혼 남녀의 성의미 유형과 결혼만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대법원 (2008). 이혼관련 절차 보도자료. <http://www.scourt.go.kr/>
-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0.
- 이미열 (2006). 청소년이 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은 (1999).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의 사소통과 결혼만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춘미 (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영민 (2000).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에 관한 취약성-스트레스-적응 통합모형.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차승희 (1991). 가족 스트레스와 부부간의 대처방안 및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08). 2007년 이혼통계결과. <http://www.nso.go.kr>
- 통계청 (2008). 2007년 사망원인통계. <http://www.nso.go.kr>
- 하혜신 (2007). 남녀청소년에 따른 부적응도식,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우울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일지 (2005). 부적응 도식, 스트레스, 자동적 사고와 편집성향 및 우울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문항반응 이론과 요인분석을 이용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워크샵 교재. 한국임상심리학회.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워크샵 교재. Department of Education and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Almeida, D. M., & Kessler, R. C. (1998). Everyday stressors and Gender differences in daily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670-680.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eeman, D. G. (1993). *Child abuse and its effects on affect and social cognition as mediated by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89).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Prospective mediating processe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119-143.
- Bradbury, T. N., & Karney, B. R. (1993). Longitudinal study of marital interaction and dysfunction: Review and 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15-27.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89).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Prospective mediating processe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119-143.
- Busby, D. M., Christensen, Crane, R. D., & Larson, J. H. (1995). A revi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or use with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Construct hierarchy and multidimensional sca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 289-308.
- Burke, R. J., & Weir, T. (1982). *Husband-wife helping relationships as moderators of experienced stress: The "mental hygiene" function in marriage*. In H. I. McCubbin, A. E. Cauble, & J. M. Patterson(Eds.),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pp.221-238).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Cohan, C., & Bradbury, T. N. (1997) Negative life events, marital interaction, and the longitudinal course of newlywed marri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14-128.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and S. L. Sy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pp.3-22). New York:Academic.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9-357.
- Cutrona C. E. (1996). *Social support as a determinant of marital quality: The interplay of negative and supportive behavior*. In G. R.

- Pierce, B. R. Sarason, & I. G. Sarason(Eds.),
The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Press.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J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3). Family economic stress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06-219.
- D'Andrea, J. T. (2003).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schema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moderating effects of
spiritual coping sty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ordham university.
- Epstein, N., & Baucom, D. H. (1993). *Cognitive
factors in marital disturbance*. In K. S.
Dobson & P. C. Kendall(Eds.), *Psycho
pathology and cogni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439-485.
-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92-1003.
- Freeman, N. (1998). *Constructive thinking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as predictors of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 Jacobson, N. S.,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7).
Neuroticism, marital interaction, and the
trajectory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075-
1092.
- Kenny, D. A. (1996). Models of inter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 279-294.
- Lazarus, R. S., DeLongis, A., Folkman, S., &
Gruen, R. (1985). Stress and adaptational
outcomes. *American Psychologist, 40*, 770-779.
- Little, Todd D., William A. Cunningham., Golan
Shaha., & Keith F. Widaman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151-173.
- Nemati, M. C. (1996). *A structural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Pasch, L. A., & Bradbury, T. N. (1998). Social
support,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marital dysfun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219-230.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 - 29.
- Roberson, Q. M., Moye, N. A., & Locke, E. A.
(1999). Identifying a missing link between

-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585-93.
- Simons, R. L., Lorenz, F. O., & Wu, Chyi-in. (1993). Social network and marit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of the impa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arent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 368-381.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Stiles, O. E. (2004).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intimacy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 Wethington, E., & Kessler, R. C.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78-88.
- Whiffen, V. E., & Cotlib, I. H. (1989). Stress and coping in maritally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6, 327-344.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s Press.
- Young, J. E. (1999).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 focused approach*(3rd ed.).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s Press.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Guilford Press.
- Young, J. E., Weinberger, A. D., & Beck, A. T. (2001).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In D. Barlow(Ed.), *Clinical handbook of psychological disorders*(3rd ed., pp.264-308). New York: Guilford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08. 9. 10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0. 22

게 재 결 정 일 : 2008. 11. 10

The Influence of Maladaptive Schema and Daily Hassle on Marital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Marital Support

Si Yeon Kim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test theoretically based models in which maladaptive schema and daily hassle were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and those relationships were mediated through perceived marital support. The authors also examined whether these relationships differed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participants (i.e., husbands and wives). Our results based on a sample of 187 married couples indicated that maladaptive schema and daily hassle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were partially mediated through marital support. In additi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s differed for husbands and wives. For husbands, marital support mediated the link between daily hassle and marital satisfaction, whereas this mediating effect was not found in the link between maladaptive schema and marital satisfaction. For wives, however, marital support mediated the link between maladaptive schema and marital satisfaction, whereas this mediating effect was not found in the link between daily hassle and marital satisfaction.

Key words : maladaptive schema, daily hassle, perceived marital support, marital satisfaction